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지난 17일 장애인 가족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미주평안교회가 20일 교회 본당에서 '창립40주년 기념 성탄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 살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 가족에게 장학금 전달

살롬 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지난 17일 저녁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축하 파티와 제16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 선교회는 1999년 LA에서 창립된 이래 남가주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장애인들을 섬겨왔다. 장애인 센

터를 주5일 열며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예배도 함께 드린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도 벌여 현재까지 31차에 걸쳐 휠체어 9,480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4만 2,220점을 11개국에 보내 장애인 5만명 이상을 도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족을 돕고 있기도 한데, 올해도 16 명의 학생들에게 총 11,4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미주평안교회 창립40주년 기념 음악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가 20일 성탄주일과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성탄음악회로 <켄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 박성근의 지휘로 소프라노 황혜경, 알토 정희숙, 테너 전승철, 베이스 김동근, 오르간 김영옥, 첼발로 박헬렌과 함께 미주평안교회 연

합찬양대, 살롬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다. 이들은 메시아를 구성하는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의 총 53곡 가운데 무려 30곡을 연주하며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임승진 담임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미주평안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퇴색되는 크리스마스 의미, 누가 원했을까?”



이 맥도날드 창문에는 예수 탄생 그림과 함께 “그분은 예수”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 SNS캡처

예수 탄생 그림이 그려진 맥도날드 지점이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테네시에 위치한 이 맥도날드 창문에는 예수 탄생 그림과 함께 “그분은 예수”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한 블로그에 의해 올려진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약 13만 4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

고 8만 2천여 명이 코멘트를 달았을 정도다.

테네시 스프링힐에 소재한 이 맥도날드의 외관을 사진에 담은 사람은 최근 미시간 주에서 이사온 에이미 바질 씨. 바질 씨는 “내가 살던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라며 “우리는 맥도날드가 그린 이 예수탄생 그림이 위험하고 급진적으로 해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알고 기독교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음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지점장인 지나 울프 씨는 “아버지 때부터 40년 간 이어져오던 가게의 전통이다”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는 시대에 기독교인의 색깔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北역류 임현수 목사” 구명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최근 북한 역류 중 지난 16일 북한 최고 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강제 노역형을 선고 받은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60)의 무사 송환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

서명운동 진행 측은 “임현수 목사는 97년부터 꾸준히 북한과 캐나다를 오가며 고아원, 유아원, 양로원 등을 지원해온 인도주의적 활동가”라며 “그런 임 목사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종교를 통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죄목으로 구금됐다”고 했다.

서명운동 진행 측은 “임현수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와 유엔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명운동의 결과물은 캐나

다의 새로운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외교부 장관 스테판 디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22일 현재, 서명운동 목표 15,000명 중 11,252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change.org/p/justin-trudeau-get-canadian-humanitarian-out-of-north-korean?recruiter=80954064&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age&utm\_term=mob-xs-no\_src-no\_msg&fb\_ref=Default]

지민호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로 인가된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
	100% 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 (BA)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HD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본교 및 LA)
- 미 연방정부 학비보조 지원 -그랜트 및 론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도 있음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도 가능 (49% 까지 강의 수강)  
 :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213-479-4500)

**2016년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6년 1월 31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 www.gm.edu



LA한인회와 남가주 교계 인사들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열었다.



제3차 정기총회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가주교협 ‘사랑의쌀 나눔’ 본격 준비”

모금은 12월 21일 시작, 쌀 신청은 1월 4일부터... 작은 교회에는 1년간 쌀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는 LA한인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펼친다.

남가주교협 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타민족 커뮤니티와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율 수석부회장은 “주최측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얼마의 쌀을 전달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개인이나 단체 모두가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교인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사랑의 쌀을 신청할 경우 140여 교회에 1년간 분기별로 쌀 쿠폰을 배부할 예

정이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지난 21일 시작되어 내년 2월 6일까지 계속된다. 모금은 이 기간 내내 이뤄지지만 쌀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남가주교협 웹사이트 [www.scalckc.org](http://www.scalckc.org)에서 받는다. 이메일 [koreanchurch981@gmail.com](mailto:koreanchurch981@gmail.com)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문지상에 양식이 공개된다. 약 1주일 간의 심사 및 검토 후에 신청자들에게 2월 1일부터 6일까지 쿠폰이 발송되며 지정된 마켓에서 쌀과 교환할 수 있다.

개인이나 타 단체와 달리 작은 교회들의 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으며 선정 작업을 거쳐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분기별 쿠폰

이 배부된다.

모든 모금과 쌀 배부는 2월 6일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독 아래 모든 후원금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 상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김 수석부회장이 섬기고 있는 나성소망교회, 갈릴리신학대, 소망기도원이 각각 5천 달러, 3천 달러, 2천 달러를 기탁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당열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이름으로 1천 달러, 제임스 안 한인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장 의사 이름으로 2천 달러를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모금 목표는 10만 달러로 잡혔다.

김준형 기자

### “로스엔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3대 회장 류당열 목사 선출...세계선교와 구제 지향 협의회 이끌것

로스엔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 총회는 1부는 예배, 2부는 정기총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2대 회장 표세흥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동명 목사 기도와, 류당열 목사 설교, 전재학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정기총회는 의장 표세흥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3대 회장 선출, 신규 임원 교제, 3대 회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3대 신임회장

은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류당열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임원은 추후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이 협의회가 세계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 복음화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야심 없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협의회는 지난 2000년 로스엔젤레스 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교회협의회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선교와 봉사 및 구제 사업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영인 기자

### “사랑나눔선교회...홈리스들과 점퍼와 음식나눔”



성탄절을 맞아 하늘샘교회(담임 송재호 목사)가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사랑나눔선교회가 저소득층과 홈리스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고 있다

### “하늘샘교회 성탄절 멕시코 단기선교”

성탄절을 맞아 하늘샘교회(담임 송재호 목사)가 지난 19일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에서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멕시코 빈민 지역에 전달했다.

하늘샘교회는 멕시코 티화나의 빈민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음식과 옷, 신발, 학용품 등을 나눠주며 선교하고 있다.

티화나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있는 도시로 빈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송재호 담임목사는 “교회는 건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연말연시 겨울철이 되면 추위와 굶주림으로 더욱 더 고통에 시달리는 불우이웃들이 있다.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춘준 목사)는 그런 이들을 위해 지난 19일 토요일 오전에 사랑의 점퍼와 음식을 준비하여 선교회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과 홈리스들에게 나눠 줬다.

이춘준 목사는 “그들의 환한 얼굴에

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기쁨이 아닌 생 각한다”며 “이러한 귀한 섬김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사용됨을 감사할 뿐이다”라고 겸손해 했다.

한편, 사랑나눔선교회는 지역 사회 구제 선교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 남부개혁신학대학 및 신대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30여명의 탁월한 박사 교수팀이 가르치는 남부개혁신학대학 LA 캠퍼스(김회창 박사)는 기독교 정통 개혁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과정으로 학사 (B.Th), 대학원 과정으로 석사 (M.Div., MA), 박사과정으로 유명한 문화교류학 (D.Ics), 선교학(D.Miss), 목회학(D.Min)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다양한 장학금 100%, 50%, 30%, 20%

#### 개강일

학부,대학원\_1월 28일  
박사 과정\_2월 21일 저녁부터  
1주간 집중 강의



President Dr. Terry Curtis

LA President Dr. John H. Kim

상담 연락 디렉터 정 T(213)219-0649

Houston Main Campus 4740-H Dacoma St., Houston, TX77092  
LA Campus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거칠고 창망한 바다 위에서 긴긴 시간을 외로이 보내는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걷는 팔지 않고 오래 걸어온 한인 선교단체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신우세계선교회(8550 Garden Grove Blvd, #206)는 지난 1983년에 창립돼 닻을 올린 이래 무려 32년 동안 소리소문 없이 롱비치항과 LA항에서 선원 복음화라는 특수선교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한 가지 사역을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음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쉽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식는 양은냄비 같은 국민성이 한인의 약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부모님 세대인 전의 삼 장로님, 임영규 장로님, 최현우 목사님, 박계로 목사님 등이 선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미국에 북한배가 들어오게 될 때 한 핏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품으신 것이 동기였지요."



신우세계선교회 선교사인 장철호 목사(맨 오른쪽)가 선상에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롱비치 항구에서 선원들 상대로 세계선교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신우세계선교회 장철호 선교사·김용현 회장

1986년부터 선교회에서 활동하다 7년 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장로는 "지금 은 다섯 명만 모여도 선교하자는 얘기를 하는 시대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눈 뜨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우세계선교회는 그 시절 많은 교회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작은 공항 크기인 터미널이 12개나 있는 롱비치항과 LA항에 들어오는 배는 무려 8,000~1만6,000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초대형 선박들. 한 배에는 보통 30명 이하의 선원들이 타고 있으며 이들은 정박한 항구에서 2~4일 정도를 보낸다. 고된 업무에도 소득은 시원치 않아 거의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민들이다. 중국-미국간 물동량이 워낙 커 중국인이 가장 많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원들은 노동을 해치며 항해하는 동안 휴식시간에도 성인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고 설사 크리스마스나 해도 항구에서 맞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터미널에 배를 대는 주선료가 상승하면서 선사들이 정박시간을 줄이고 있고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원 조사를 거쳐 연방 운송안전청(TSA)의 운송노동자인증카드(TWIC)를 발급받은 사람만 게이트를 거쳐 출입할 수 있어 선교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선교회는 항구에 소재한 선원센터 또는 배안(1년은 다녀야 길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터미널이 복잡하고 출렁이는 사선의 구름다리를 통해 5~10층 높이의 배에 오르는 승선 방법도 터미널마다 다르다)으로 찾아가 비기독교인이 대다수인 선원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준다. 또 믿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훈

련시켜 바다끝을 '땅끝' 삼아 배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도록 무장시킨다. 모든 것을 스스로 구입해서 써야 하는 선원들에게 화장지, 치약 등 생필품을 사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LA에서 선원선교 학교를 연 적도 있다. 50여 회원을 두고 있는 선교회는 북가주 오클랜드와 워싱턴주 타코마에도 선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펼쳐온

## 32년간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 선원들에게 복음 전파 생필품 선물하고 협력선교사 파송해 동역...장학사업도

저력을 바탕으로 임원 출신인 광동원 선교사(러시아), 김영호 선교사(캄보디아) 등 여러 명을 파송해 협력선교를 하면서 선교사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인터넷이 되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인생을 보내는 선원들은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몹시 반갑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3세계 국가들에 찾아가서 선교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데 이곳에 앉아서 그들을 만날 수 있으니 항구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몸 롱비치에 들어가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소식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CCC 대표간사 출신으로 2개월 전 두 항구를 맡는 선교사로 임명돼 업무를 파악하고 선교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장철호 목사는 "매주 항구를 찾아 영혼들을 돌본다.

최근 한 스리랑카인을 선원센터로 데려와 음식을 나누고 깊은 영적 대화를 했다. 그는 45일에 걸쳐 롱비치-샌프란시스코-중국-캐나다-롱비치를 오가는데 바다에서 30일, 육지에서 15일을 보낸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선박 목자'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번에 갔더니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더라"며 "말씀 묵상과 기도 등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회원들에게 카톡으로 중보기도

를 부탁한 뒤 항구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자들의 소원으로 회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는다"며 "그동안 너무 조용히 활동한 것 같아 앞으로는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일하는 신우세계선교회는 3개월마다 재정보고를 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후원금의 99%를 선교비 및 사무실 렌트로 지출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임원들이 낸다. 매달 첫째 토요일 기도회 겸 임원회를 열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앞당기겠다는 열망을 지닌 한인들의 합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4-474-9007(장철호 목사) 김장섭 전문위원



32년을 한결 같이 선원 복음화에 매진해온 신우세계선교회의 선교사 장철호 목사(왼쪽)와 회장 김용현 장로.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최신특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은혜성로원교회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친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은혜성로원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드려”

은혜성로원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예배는 양용집 목사(남가주만남의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돼 박형만 장로 대표기도, 백건길 장로 성경봉독, 이 교회 찬양대의 찬양, 지윤성 목사(안디옥교회 담임) 설교,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담임) 권면, 취임패와 꽃다발 증정, 조현주 집사 축가, 김원중 목사(미주목회자 성경연구원 총무) 축사, 김상호 목사 취임사, 고응우 장로 인사 및 광고, 김상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

행됐다. 지윤성 목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렘36:1-8)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목사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며 “충성된 일꾼이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곁의 바둑처럼 첫째, 주인(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둘째, 소리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셋째, 힘든 일도 감당하는 사람,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성도들을 향해 서는 주의 종이 그러한 충성된 일꾼

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호 목사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위치한 은혜성로원교회의 담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취임예배가 끝난 후에는 인근 한 음식점에서 교회가 마련한 저녁식사를 즐기며 다함께 새로 취임한 담임목사와 은혜성로원교회의 미래를 축복했다.

이영인 기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와 엔키아선교회가 공동으로 탈북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바자회를 통해 마련했다.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탈북민 자녀에게 5천 달러 장학금 전달”

#### 바자회 수익금으로 17명에게 ... 엔키아선교회와 공동으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이하 여성목사회, 회장 강지원 목사)가 지난 10월 중순 탈북민 자녀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연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17명에게 300불씩을 전달했다. 여성 목회자들이 직접 물건을 후원받고 음식을 장만했으며 발로 뛰여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 22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여성목사회와 탈북민 단체인 엔키아선교회가 공동으로 열렸다. 회장 강지원 목사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탈북민

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말했다. 헬렌 김 목사(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이순자 목사(서기) 기도, 사론 신 목사(부회장) 성경봉독(시편 30: 10-12), 강지원 목사 설교, 정경희 목사(총무) 광고, 김종용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 수여식은 엔키아선교회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우형 목사가 기도하고 백지영 목사(여성목사회 증경회장), 김재울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가 축사를, 엄규서 목사(남

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임태랑 회장(민주평통LA)이 격려사를 전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 김관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가 기도했다. 엔키아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탈북민 자녀들도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한다. 이들이 통일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 선교회는 내년 6.25 기념일에 탈북민 170 명을 초청해 간증, 연합예배, 한국 방문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엔키아선교회는 탈북민 가정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돌봄의 사역, 나눔 및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④

### 《예루살렘 편》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술탄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온산 지구(하) -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비아 돌로로사)는 ▶제10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길’이라는 뜻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 수난의 길을 말한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걷는 이 길에 마련된 14개 장소는 18세기에 확정됐으며,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 정해진 곳도 있다.

#### ◆십자가의 길 14곳

- ▶제1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을 받으시던 빌라도 법정이다. ▶제2지점은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 곳이다. ▶제3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진 곳이다. ▶제4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난 곳이다. ▶제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Simon of Cyrene)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이다. ▶제6지점은 성 베로니카가 물수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곳이다. ▶제7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쓰러진 곳이다. ▶제8지점은 ‘예루살렘의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23:28)고 말씀하신 곳이다. ▶제9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쓰러진 곳으로, 고틀 교회가 서 있다.

- ▶제10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긴 곳이다.(요 19:23 ~ 24)
- ▶제11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다.(눅 23:33)
- ▶제12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이다.(마 27:45~ 51)
- ▶제13지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린 후(마 27:59), 제14지점에서 그가 자기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지냈다.(마 27:60 ~ 61)
- ※ 제10지점에서 제14지점까지는 처형의 목적지인 끌고다 언덕 위로, 지금의 성묘 교회 안에 있다. <계속>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메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메니저 김상준.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올림픽장로교회

##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 올림픽장로교회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허물을 말하기 보다 격려의 말을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애 힘쓰며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에 앞장서며 성령으로 하나되어 복음전파에 힘쓰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 축성탄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장수 담임목사

#### 주일 예배

1부: 오전 8:30 | 2부: 오전 11:00  
 3부 리셋: 오후 12:30

#### 교회학교 - 유초등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 오후 12:30

#### 중고등부 Youth group

주일 예배: 오전 11:00  
 성경 공부: 오후 12:30  
 금요 모임: 저녁 7:30

#### 금요 기도회

매주 금 | 저녁 8:30

#### 새벽 기도회

월-금 | 새벽 5:30



Olympic Presbyterian Church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 베드로전서 4:12-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성도의 참된 즐거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됩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의 남은 뜻인,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수모와 행패와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 한 마디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신적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희생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약속대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생명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의무를 감당하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히 같이 살 때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 2.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의 이유: 연단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의 영적소속에 대한 마귀의 핍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로 시련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하급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일곱 집사님 중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교회에 박해를 가합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할 때에 불기운이 연기와 함께 숨통을 막아 오지만 그들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과 내세 소망을 입체적으로 증거 했습니다.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선배가 되셨기에 복음은 땅 끝까지 힘 있게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지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순결하고 온전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불로 시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왕궁의 교육을 받고는 왕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질투로 인해 그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두라평지에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기로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는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음의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

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박해로 인해 노예로 신음하고 멸시와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가 겪은 사건은 신앙의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덮어서 불꽃이 그들을 그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 되심을 이방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 3. 성도의 복: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무 잘못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복락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까지 살리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괜히 참여하다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연여터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값에 대한 당연한 보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신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자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목숨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성숙된 성도, 의리와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축성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usa@yahoo.com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 1부 오전 7:40 분당
- 2부 오전 9:30 분당
-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분당
- 4부 (초용기 목사 영성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분당
-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분당
-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분당
- 영아부 예배 (0-3세) 주일 오전 9:30, 11:30 / 분당 영아부실
- 유치부 예배 (4-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 분당
-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 다문화선교

#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급변해 가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다.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마스크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어떤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주민은 하루에 약 2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가 자신들의 문화와 활동의 영역을 자국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국제화(Globalism) 시대로 변화하게 하였다. 즉, 자국만의 문화를 고집하던 시대가 아닌 다문화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로 세계는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5,000년 역사 속에서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던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의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교회의 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들은 1972년부터 시작한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연합(Evangelical Christian for Racial Justice)과 다문화 민족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6가지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6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는 하나의 인종이다. 둘째, 인류의 인종은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셋째, 인류의 인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타락하였다. 넷째,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다. 다섯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류들의 모임이다. 여섯째,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의 구성원은 단일화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수천 년 동안 순혈주의,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유지해 온 역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는 쉽게 교회를 구분할 때 “백인교회”, “흑인교회”, 그리



송재호 목사  
하늘샘교회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는 당연하게 단일화된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변화 중에서 하나가 다문화 현상, 다민족 목회라는 시도이다.

그러면 다문화 목회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다문화 목회는 “전도” 뿐 아니라 “선교”를 포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는 국내에서 그리고 선교는 국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에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도와 선교를 국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선교와 다문화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 목회는 “목회와 선교”를 함께 포괄하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라는 개념과 선교라는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하지만 다문화 시대를 통해서 교회내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함께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돌보고 양육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미래에는 선교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문화 목회는 “현직인 선교사를 양육함과 동시에 파송”하게 되는 중요한 사역의 장점을 국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인을 양육하여 자국으로 파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직인 선교사를 본국으로 파송하게 되면 선교지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다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와 선교 전략은 지금 이시대 교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제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금의 시대적 위기속에서 기독교는 또 다른 도전과 과제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내의 이주민들은 자국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한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은 2020년 까지 미국을 제패할 것을 전략화하고 있다고 한다. 미 외교 전문지인 “린 폴리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는 세계 중요 종교 중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GMS와 OM 선교회 소속으로 이집트와 영국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한 유해석 선교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이며 향후 15년 안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 또한 약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될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교회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전파 사역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수적 목회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라는 사실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언제 우리가 거주하는 본토가 이슬람화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ISIS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ISIS 테러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이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도 변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주민들과의 영적전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명령에 순종하여 다문화 전도와 선교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갈무리 해야 할 시간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농사철이 끝나면 농부들은 갈무리를 한다. 사용했던 농기구를 잘 씻어두고, 혹 심하게 마모된 연장이 있으면 미리 대장간을 찾아가 수선한다.

갈무리를 하다가 내 것이 아닌 물건이 발견되면 얼른 제 주인을 찾아 준다. 농기구뿐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낸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제 2015년을 갈무리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무리하며, 이웃들과의 삶을 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잘 정리한 후에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리해야 한다. 연초부터 미루어 왔던 생각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다. 어제도 온종일 그 생각을 했고, 오늘도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리라고 예상할 때 우리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언제 다시 튀어나와 또 괴롭힐지 모른다. 마음의 창고 문을 열고 이런 생각들을 찾아내어야 한다. 창고에 적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씩 지워가면서 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순종을 유보하느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어려워하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다. 수시로 우리

의 빛을 당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웃들과의 삶도 잘 갈무리해야 한다. 맺힌 일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녹여버리며,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뢰와 사랑의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원수지고 사는 삶보다 화목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한 사람과 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과 푸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화목은 하나님의 특하다.

갈무리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년에 더 풍성한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더 정신이 없어”하면서 떠밀려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음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할 것이다. 살아본 적이 없는 2016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브!

2 개 한국채널

5 개 한국채널

# 14 개 한국채널



KoreanDirect™ 패키지 + PREFERRED CHOICE™ 패키지  
오직 DIRECTV에서만 14개 한국채널과 145개 이상 영어채널이  
월 \$38.98\*

12개월간. \*자동 청구서 결제 가입 및 24개월 약정 필요. \*\* 플러스 추가 요금.



SBS MBC KBS WORLD YTN CTS radiokorea arirang

SBS Plus macovery tvN EBS MBN tan NATIONAL GEOGRAPHIC CHANNEL KOREA

Arirang TV - HD 기기 요구

케이블 위성 방송 기준

오피는 2016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규 가정용 DIRECTV 고객에게만 해당됩니다(장치 리스 필요). 신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MA와 PA 제외). 초기 해지 수수료(최대 \$480)가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장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케이블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전화하세요!

## 1.877.602.0490

**DIRECTV**  
Now part of the AT&T family

\*패키지 오퍼: 12개월간 기본 패키지 가격에 즉시 청구서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고객님의 구입 시 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패키지와 자동 청구서 결제를 반드시 활성화하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12개월 후, 고객이 서비스 변경을 위해 DIRECTV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시점부터 일반 가격이 적용됩니다(KoreanDirect \$28.99/월, PREFERRED CHOICE \$48.99/월). PREFERRED CHOICE 패키지에는 자격이 되는 WorldDirect 인터넷채널 선택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일반 TV 서비스 규정: DIRECTV 고객 동의서 및 장치 리스 동의서가 적용됨. 고객님의 기본 월\$29.99 TV 패키지 또는 그 이상, 또는 인터넷채널 서비스 번들을 유지해야 함. 모든 HD DVR에는 어드밴스 리시버 요금(월\$15)이 부과됨. DIRECTV 리스로부터 TiVo HD DVR에 대한 TiVo 서비스 비용(월\$5)이 요구됨. 각 수신기 당 및/또는 Genie Mini/DIRECTV Ready TV/Device에 대한 월\$6.50의 비용이 고객의 여카운트에 청구됨. \$19.95의 핸들링 및 배송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수신기 당 비활성화 비용 \$150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프로그램, 요금, 거래 약관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스탠다드 전문 설치는 최고 방 4개에 한함. 맞춤 설치 시 요금 추가. 설치 비용은 세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directv.com/legal](http://directv.com/legal) 방문 또는 1-800-DIRECTV으로 전화.  
© 2015 AT&T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보유. AT&T, Globe 로고와 모든 DIRECTV 마크는 AT&T Intellectual Property 와 AT&T 계열 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Nyskc-나이스크〉 예배회복운동 선정 2015년 12대 뉴스

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을 주도하고 있는 Nyskc World Mission(NWM)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것들을 종합하여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12개의 뉴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2015년은 Nyskc 운동을 시작한 지 23년이며, 컨퍼런스를 시작하는지는 20년이 되었다. 예배회복운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3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기초와 기본을 세워가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겠는가?"라 전했다. 이 운동은 1993년 뉴욕에서 시작되어 전 미주와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이어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국가들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펼쳐져 나가고 있다. 문의) www.nyskc.org, 845-355-8829

## 1. 20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열린 Nyskc World Conference '15



23년 주년을 맞이하며 20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열린 Nyskc World Conference '15가 미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 대학에서 3박 4일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는 올해 Conference는 20회째를 맞이하며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3박 4일간의 은혜로운 일정 모두 마치고 2016년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대회를 약속하였다.

## 2. Nyskc Family Conference KDJ '15 한국 대전에서도 나이스크의 열풍



Nyskc Family Conference KDJ '15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신앙과 사랑의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모여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 대전에서 열린 Nyskc Conference: 관중의 대원 참석과 감동 공연 가득 대우와 각 드레싱 경이기에 시작되어 각 강의마다 다 은혜가 넘쳤다 또한 전도공연도 많은 등, 극적기도에 대한 시선으로 나가도 Nyskc도 하고 주어와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2016년 Nyskc Family Conference가 한국 풍수에 시너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Nyskc Mission Family Conference SA '15 인도 뉴델리에서 성황리에 개막



Nyskc Mission Family Conference SA '15 성황리에 개막 하다 "교회와 예배는 최상선교전략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인도 뉴델리에서 NWM 서남아시아 본부 주최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의 관인교회는(인도) 최초로 열렸던 이번 컨퍼런스는 북인도의 관인교회는 물론 북인도 선교사들과 그리고 인도-한국, 이 관인교회를 전인도 관인교회의 모든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를 세우는 일인 것 조차며 2박 3일간의 일정도 마치고 폐회 예배드림이 내년 2016년 가을에 마감되었다.

## 4. NWM 베트남에서 예배회복운동을 확산



NWM 대표회장님 VIETSOVPETRO RESORT HO TRAM-VIET NAM에서 열린 교협총회 주강사로 초청되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한 NWM 대표회장 최고 선목사님과 GTS Prof. Ezra Kim 목사님 일행은 호찌민 공항에서 교협에서 시작되는 이번 선교사들의 영접을 받고 교협총회에 참석하고 예배는 본질이다. 헌장은 교회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임을 강조했다.

## 5. Goshen Theological Seminary 학기 시작을 알리며 감사예배



Goshen Theological Seminary 2016 Semester 시작하면서 감사예배

지난 9월 13일 5:40 PM 오후 Goshen Theological Seminary 학기 시작을 알리며 감사예배를 이사장 Dr. Joasia Choi 교수와 함께 이루어진 감사예배를 하고 관계자들이 모두 감사예배를 드림이 시작되었다. 이 날 감사예배에 참여한 NWM 대표회장 최고 선목사님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은 이사장님의 말씀이 전하며 특별사서로 4주 앞으로 이루어진 전례일이 이루어져 감사하게 하였다.

## 6. Nyskc Learned Society 주최 Symposium



Nyskc Symposium '15 Restoration Of Theology & Theology of Nyskc 연구회

미국의 신학과 나이스크 신학을 연구하는 Nyskc Learned Society 연구회(신학연구회)가 2015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외 컨퍼런스 등에서 인력양성 및 신학연구를 비롯하여 학회회원 최고 선목사, NWM 총재 피조진목사, 대표회장 최고 선목사, 그리고 GTS 교수장 엔디 주 교수 등 5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Experience of Nyskc Movement", "Nyskcism", "Theology of Restoration", "Nyskc & Pastoral Mission"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신앙의 이해" "신앙이 아니라 예배에 미치는 영향" "예배회복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등 6개의 주제였다.

## 7. "십자가가 왜 아멘인가"를 7가지로 정리 핸드북으로 출판



도서출판 미클랏에서 최호선 목사저 "십자가는 아멘입니다" 105 페이지로 출판

자신의 최고목회사는 목회현장에서 특별재능 기도회를 1년이면 적게는 한 주만 못해도 크게는 한달씩 일과제외 기도회를 갖는 데 전한 말씀을 정리하여 책을 내는 것이다. 이 책은 핸드북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진리와 구원 그리고 변화와 능력 소망과 축복이 라는 것은 단순한 내용으로 정리했다.

## 8. Nyskc Leadership Academy '15 Seville, Ohio에서 열려



Nyskc World Mission이 매년 개최하는 2015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Nyskc Leadership Academy가 오하이오 주 시빌의 GTS(Goshe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열렸다.

구별된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사명자의 삶이란 사랑과 구별된 삶이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나이스크 아카데미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MS, MS2, MAS, 로서 자기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권익이 사명등인 계속된 가운데 헌신의 결단 사명자로서의 미약한 삶이 무엇을 결단하였다.

## 9. Nyskc Momentum Conference '15 개최



네가 어디서 오느냐(When Comest thou)(2 Kings) 주제로 For Youth & Young(MAS, NP) Matamoras, PA Hamtoras Hotel에서 열렸다.

2015년 Nyskc Movement의 겨울 컨퍼런스가 2월 15일 Opening Worship 을 갖고 열정에 들어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예배하는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 신앙훈련에 들어가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린 Nyskc Momentum Conference는 헌신과 관련된 질문과 응답을 리드하며 함께 모여 MAS(Minute Ascendant Start)들이 중심이 열리는 컨퍼런스로 1998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열렸으며 올해로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 10. 극단 미클랏 21회 정기공연



"Nyskc Movement의 한 축 문화사적으로 21회 정기공연이 열렸다

"이때를 위한인지 누가아는 나" 성경 에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조명" 한 작품이다.

극단 미클랏의 21회 정기공연이 성황리에 마쳤다. 수중으로 부패하므로 정리를 구성하여 단단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무대에 올라 한 작품을 펼쳤다. 극단 대표 Joasia Choi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참석자와 모든 출연자 및 스태프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복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조명"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었다.

## 11. Nyskc Praise & Blessing Festival '15 나이스크 찬양제가 처음으로 열려



"나이스크 찬양제에 9개 팀이 참가 기쁨의 축제로 성경찬양한 가운데서 열린 찬양제는 1시간동안 축제 분위기 감사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2015년 처음으로 마련된 Nyskc Praise & Blessing Festival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찬양제에는 9개 팀이 참가하여 13곡의 찬양을 연주하며 찬양제에 열정을 쏟았다.

## 12. 한국 광주에서 미국 뉴욕으로 13명의 목회자 Nyskc World Mission HQ 방문



한국 광주에서 13명의 목회자들이 Nyskc World Mission HQ 방문하여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Theology of Nyskc & Nyskc In Pastoral Forum"에 참여

광주에서 뉴욕을 방문 목회자들은 Nyskc Movement 관하여 보았는 목회자로서 서로 목회자의 경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Nyskc 목회로 도전하고 영적 회복을 시작하고자 한다.

찬양제에 대한 찬양제에 참가하는 모든 팀의 임직원의 임직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것들은 나누어주고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목회행사를 계기로 2016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전중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명예교수)

**shalom장애인선교회**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90006  
Tel: (323)731-7724  
[www.shalommin.com](http://www.shalommin.com)



**박모세 목사**

**신우세계선교회**  
Shinwoo World Mission(1983년 창립)

-롱비치, LA, 오�클랜드, 타코마 항구에서 세계 각국 선원들에게 복음전파.  
-중국, 티벳, 일본, 중앙아시아, 러시아, 뉴질랜드, 남미 등의 협력선교사와 동역.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급



**회목: 장철호 목사**

8550 Garden Grove Blvd., #206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74-9007

**산상보훈교회**

주님의 긍휼을 품고  
노숙인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충남 · 방영자 목사**

매 주일 오전 9시  
오렌지시 세이퍼공원  
T. (714) 552-6222

**새생명중앙교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교회"(창6:9)

주일예배: 오후 12:30  
예배 장소: 본관 Wong Chapel



**서종운 담임목사**

540 S Commonwealth Ave., LA CA 92002  
T. (818) 515-5731

**풍성한 교회**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2911 W. Beverly Blvd., LA, CA90057  
[www.amc365.org](http://www.amc365.org), email: amchpark@hotmail.com

**L.A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 예배 2부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예배 오전 10시 30분  
English Service 오후 12시 30분  
금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 예배 오전 5시 30분 (월~토)

[www.thejoylife.org](http://www.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gmail.com

**얼바인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사랑의띠선교회**

예배시간: 주일-오전 10시 45분  
목요집회: 오후 7시 30분



**김천환 담임목사**

1300 W Olympic Blvd., LA, CA 90015  
T. (213)736-6625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남가주새소망교회**

1)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있는 교회  
2) 서로를 사랑하며 많이 웃는 교회  
3) 전도하며 회복 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 인도하는 교회



**김성민 담임목사**

**교회모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방송설교 안내**  
AM1190 - 수요일 오후 5시  
AM1650 - 금요일 오후 11시  
AM1230 - 토요일 오후 10시 10분  
CHTV 18,88

**주소 및 전화**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503)332-1941  
담임목사님 email: nhcscjason@gmail.com  
[www.newhopechurchla.com](http://www.newhopechurchla.com)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벤츄라교역자협의회**

- 회장: 김민영 목사 (벤츄라감리교회)
- 총무: 송광철 목사 (새생명교회)
- 벤츄라카운티교회협의회 벤츄라감리교회 (김민영 목사)
- 벤츄라열린문장로교회 (김경욱 목사)
-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이정구 목사)
- 새생명교회 (송광철 목사)
- 시미밸리한인교회 (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한인교회 (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한주봉 목사)
- 주님의교회 (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 (조인 목사)
-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8-9)"




**박성규 담임목사**

**교회모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만회 금 오후 7:20

**주소 및 전화**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세운교회**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Merry Christmas**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주님 태어나신 성탄의 계절에,**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올 한 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센터로 거듭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성탄과 2016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기도 중에 세우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성탄의 계절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직원 일동 드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총 장 이상명 박사 | 15605 Carmel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이사장 박성규 목사 |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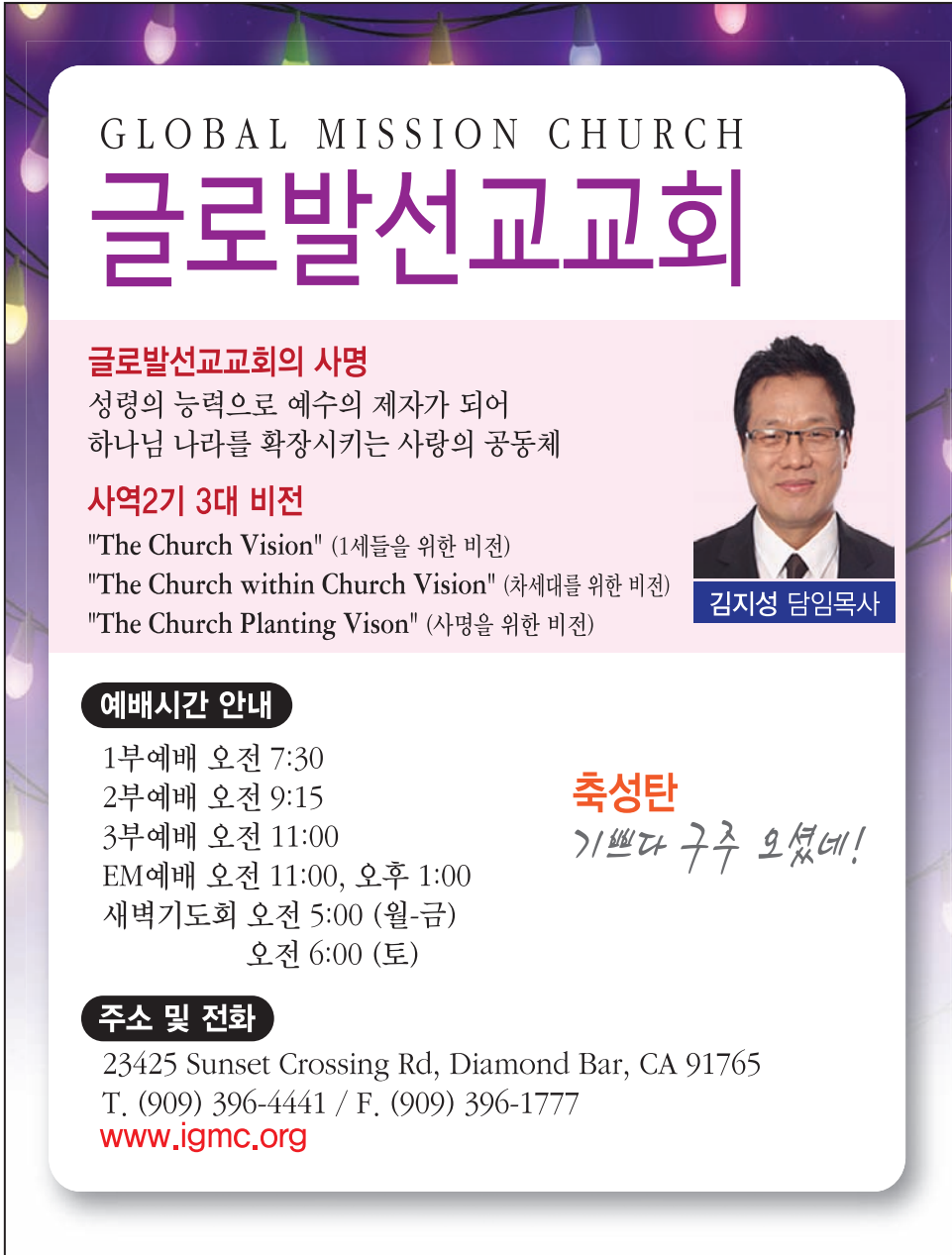
앨바인에 위치한 베델한국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 분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 분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 분당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 분당  
수요 예배: 저녁 7:30 / 분당  
토요 헬시바 새벽 기도회: 새벽 6:00 / 분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5:30 / 분당

담임: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Sr. Pastor

**베델한국교회** |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 854-4010 • Fax. (949) 854-4018 • 수양관 (949) 943-9697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GLOBAL MISSION CHURCH  
**글로벌선교교회**

**글로벌선교교회의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사역2기 3대 비전**  
"The Church Vision" (1세대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within Church Vision" (차세대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Planting Vision" (사명을 위한 비전)

김지성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월-금)  
오전 6:00 (토)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 F. (909) 396-1777  
www.igmc.org



**Coffee Break Small Groups** | **커피브레이크**  
Coffee Break Ministry

**특징**

- 전도 목적의 소그룹 사역
- 55개 교단이 도입한 말씀 중심의 사역
- 교단을 초월해 교회와 평신도를 세우는 사역
- 25개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
- 질문을 활용한 귀납법적 발견학습법
-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는 지역별 성경공부
- 삶의 변화가 있는 맞춤형 성경공부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연락처**  
10356 Artesia Blvd., Bellflower, CA 90706  
www.coffeebrekkorea.org  
박종선 미주대표: jong715@gmail.com, (562) 650-4449  
백은실 글로벌대표: coffeebrekgreece@hotmail.com, (714) 290-2111



Merry Christmas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주안에교회**

서리호스채플이 플라튼으로 이전합니다

**\* 이전감사예배 \***

2016년 1월 3일(주일)  
1부 9:30am / 2부 11:30am

주소: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전화: (657) 217-5558

**주안에교회 ICC**

예배 안내: 벨리채플 | 주일 1부 / 오전 8:00, 주일 2부 / 오전 9:45, 금요일성경회 / 저녁 7:45

예배 안내: 플라튼채플 | 주일 1부 / 오전 9:30, 주일 2부 / 오전 11:30, 목요일성경회 / 저녁 7:45

교회 안내: 주안에교회 | 벨리채플 (818) 363-5887, 플라튼채플 (657) 217-5558, Web / in-christcc.org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성탄절 칼럼

#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연중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설레이고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월(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월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휴가의 달이기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월은 주변의 가난한 자, 고아, 병든자, 과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과 사랑의 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 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달이며 축복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이 시작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기간이 다가오면 대중매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주제가 아닌 산타가 등장하여 고객들에게 쇼핑을 위한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주제가 되버리고 만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간이 되면 연인들 간에는 로맨틱한 사랑이 더 의미있어지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선물을 교환을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많은 장미 꽃송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는 박스를 열어 사랑의 고백과 결혼을 위한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아 남자의 청혼을 받아 준다.

그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남자에게서 받는 여자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 보았다.

그들은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이유는 필자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신을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도 12월이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지만 삶의 현실은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12월은, 축복의 달이라기 보다는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슬픔의 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12월, 산타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선물을 주는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움의 그림자



김 칠 곤 목사  
크리스이드교회 한인담양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지만 진정한 파라다이스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 부유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꿈꾸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이시며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그리스도는 “보통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그리스도가 특별한 선물 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주님은 아주 평범하며 보통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어린 처녀였으며 그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누가복음1:31-33)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떠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말을 들은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라고 말할 할 때까지는 아마도 수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었을 것이다.

‘아니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도 하지 아니한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또 ‘과연 사람들에게 예수의 잉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러한 반복된 갈등속에서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눅1:37)는 말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듣고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품이나 그녀가 특별한 유업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아니었다. 그녀는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씨름하는 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며 은

혜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수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며 놀라운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인간이 계획한 것보다 뛰어나시고 놀랍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여 주실 때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평범한 보통 여인에게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 하게 하신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 그녀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을 가질 때, 그녀의 아들이 십자가 상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면류관과 6인치의 못에 찔려 죽으시는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을 내리시는데도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고통스런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대한 불평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들의 의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보통 사람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알 것이다.

●강선영 칼럼

# 잘했어, 잘 견뎌냈어

한 해의 끝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올해도 어김없이 또 쓰게 된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범죄와 전쟁들, 사고와 외상들, 희망을 잠식한 절망의 시간들이 매일 뉴스로 흘러 나왔다. 살아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정도로 말이다.

상담 전문가로서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픔이 극심한 이들의 치유에 동행하는 일이다 보니,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 더욱 고단한 한 해였다고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수많은 불행을 함께 느끼며 힘들어했었다.

그러다 어느새 겨울이 되어 흰 눈이 내렸고, 그 눈을 맞으며 하얗게

변한 넓은 들판에서 두 손을 들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벅차게 누리기도 하고, 이만큼 살아냈다는 기쁨도 느끼게 되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죽고 싶어했던 이들이 점점 더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환한 얼굴이 되었을 때, 나는 치유자로서의 행복감과 보람을 느낀다. 나 역시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지만, 그(그녀)들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했어, 잘 견뎌냈어”라고 말할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슬픔이 흐르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다.

“잘했어, 잘 견뎌냈어” 이 격려의 한 마디가 남아 있는 치유를 더욱



강 선 영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완성해 주리라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또 한 해가 가도록 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라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생각들이 치유를 더욱 방해하는 것이다.

아직 부족해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해도, 못마땅한 생각이 들더라도, 이만큼 살아내고 견뎌내고 살

아왔으며 또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다. 결코.

내가 나에게 충분히 말했다면 그런 후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자. “힘든 한 해의 시간을 잘 견뎌왔고, 잘 살아왔어요” “당신도 참 잘했습니다”라고.

새해엔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하는 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두려움의 발걸음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 앞에 눈부시게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욱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생애의 시간들이 햇살처럼 반짝이며 나에게 오도록 기회를 주자. 마음을 열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삶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고난은 나의 밥이다

이복자 | 예찬사 | 224쪽

저자는 요즘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동시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치유사역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성령세례와 권능을 힘입어 귀신의 세력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승리케 하는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박성근 | 두란노 | 2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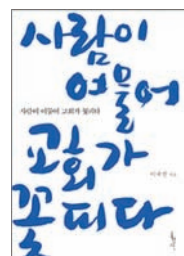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해답이라는 것. 이 책에서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우리 영혼을 깨우는 박성근 목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위로와 감사와 도전을 전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혼의 밤, 그 요란한 것들 뒤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 사람이 머물어 교회가 꽃피다

이국진 | 흥성사 |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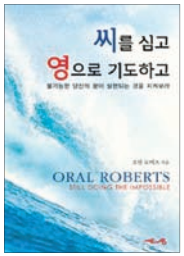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암울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묵묵히 머물어 가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소리 없이 여무는 그런 이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선과, 한국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파헤치는 예리한 시선이 맞닿아 있다. 작고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저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옹골진 지혜와 깊이 있는 영성을 이끌어 낸다.



#### 씨를 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오랄 로버츠 | 서로서랑 | 332쪽

오랄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50년 이상 전파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로버츠 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위대한 사랑과 돌봄의 개인적인 어루만짐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감추어진 열쇠를 보여주고 있다.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세 자녀와 부인을 양화진에 묻고 조선땅 선교에 헌신한 삶”

## 한국 초기 선교에 공헌한 빈튼 의로 선교사의 선교편지 모음집

한국 초기 선교에 공헌한 선교사들은 적지 않다. 그들 중 자신의 생명을 잃은 이들, 부인을 혹은 자녀들을 잃은 이들도 적지 않다. 빈튼(C. C. Vinton, M.D) 선교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빈튼은 제 종원에서 진료하였고, 자주 지방 순회진료를 하면서 복음 선교에 헌신했다. 또한 주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회 서기로 다년간 봉사하면서 1891년부터 1898년까지 있었던 회의록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 그 기간 동안 북장로교회가 행했던 사역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 선교사다.

그는 1891년 내한하여 1908년 선

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할 때까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다. 그것은 아들 Walter(1살)와 Cadwiler(4살), 그리고 딸 Mary(6개월) 세 자녀를 조선땅 양화진에 묻은 일이다. 1903년에는 부인 Letitia까지 생명을 잃어 자녀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같이 묻혔다.

저자 김인수 교수(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빈튼 선교사의 편지를 번역, 출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그가 치른 값비싼 희생에 대해 한국 교회는 빛을 झा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괄목할만한 업적은 못 남겼다 해도 가족 네



빈튼 의사의 선교편지 김인수 콤란출판사 | 498쪽

명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한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한국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는 한때 제중원 원장으로 사

역했고 조선서서공회 창설에 공헌했으며 기독교신문 The Christian News 편집주간으로 사역했다. 또한 선교잡지 The Korea Field, The Korea Mission Field 편집에 수고했다. 그리고 조선 나병환자 실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부산 나병원 설립에도 공헌했다. 그는 1908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여 1936년 뉴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책 전반부는 빈튼 선교사가 엘린우드(F.N. Ellinwood) 박사(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실행이사)에게 보내는 선교편지를, 후반부는 그 영문 원본을 차례대로 실고 있다.

조선에 도착한 직후인 1891년 4

월 10일자 편지를 보면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과 그리고 끊임없이 암반 위 토양층 아래로 스며드는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조선의 의료상황은 아주 형편없었다. 하지만 같은 편지 내용 중 “...한 국민들은 제가 확신하건데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 들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국 선교를 위해 가족 넷을 잃은 선교사는 빈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는 한국 선교 역사의 숨은 보화이다. 이영인 기자

### 대리점 모집

# 점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습보충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김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무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항산화 효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 “손양원 목사 ‘옥중서신’ 모두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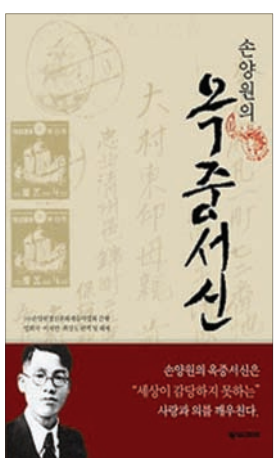
## ‘손양원 전집 발간’의 첫 결과물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사장 이성희 목사, 이하 사업회)가 추진 중인 ‘손양원 전집 발간’의 첫 결과물인 <손양원의 옥중서신>을 발간했다.

손양원 목사가 일생을 통해 보여준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여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 사업회는, 이사장 이성희 목사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 카페 다사랑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회를 개최했다.

책은 1부 현대어 원본과 2부 활자화·사진 원본으로 구성되며, 손양원 목사가 일제 시대에 감옥에 갇혀 가족 등과 주고받은 서신 73통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진은 애양원에 전시된 친필 유고들의 유리를 해제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 고해상도 사진 촬영과 스캔 작업을 진행했으며, 완료 결과 총 분량이 6,700쪽에 달했다.

이사장 이성희 목사는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잊을 수 없는 순교자이면서,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졌던 분이셨다”며 “전집 발간을 위해 여수 애양원과 성산교회가 소장한 모든 기록들을 디지털화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했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손양원의 옥중서신  
이치만, 최상도, 임희국 편저  
넥서스CROSS | 404쪽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교의 정신’이

도여서, 서둘러서 작업하는 중”이라고 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순교사(史)’를 공부한 최상도 박사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가끔 한자어를 빌려 쓰기(음차)도 했고, 옥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나 약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한 글자를 풀기 위해 째게는 1주, 길게는 한 달간 관련 한자 서적을 뒤진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연구 중 인상적이었던 서신에 대해 최 박사는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가 만주로 가시는 등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 있는 자신을 한탄하는 부분(책 119쪽)이 나온다”며 “시대적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손양원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목사도 “아들 동인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생각하는 등 부자(父子) 사이가 굉장히 애뜻했다”며 “그런 아들을 먼저 순교자로 보낸 손 목사님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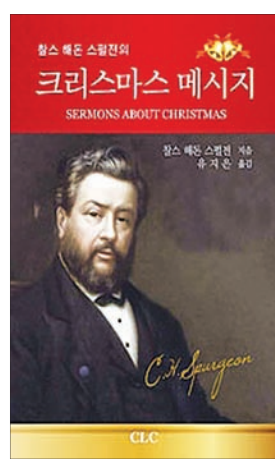
이치만 교수는 “아들 동인 앞으로 보냈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띄우는 서신 내용 중, 출소 예정일에 오히려 무기구금형을 받은 날로 손양원 목사님은 물론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다(54쪽)”며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번역하면서 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인지 느껴져 뭉클했다”고 밝혔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픔을 억눌러 가면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장면”이라며 “그동안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이라는 관념으로 다가왔다면, 서신에서는 인간 손양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목사는 “미국 유학 전후 영락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옛날 주보를 정리하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한국 전쟁 몇 주 전 손양원 목사님이 →

# “크리스마스 설교는 어땠을까”

## 찰스 해돈 스펔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크리스마스 메시지  
찰스 해돈 스펔전  
CLC | 312쪽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에 대해 교육적·정서적·예언적·교훈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스펠전 목사는 “비록 청교도의 계승자인 우리가 성탄절을 다른 어느 날과 다름 없이 보내거나 어떠한 종교적 분별력을 갖고 지키지 않더라도, 매일이 성탄절인 것처럼 믿고 또 매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빠른 시간 안에 화해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당장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탄절을 평화롭게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며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당신의 방으로 가서 주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은 이 땅의 평화이면서 당신 마음속의 평화, 당신과 거하는 평화, 당신 주변 동료들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라고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859년 ‘크리스마스에 생긴 한 가지 질문(사 9:6)’, 1862년 ‘빈 방이 없었다(눅 2:7)’, 1863년 ‘크리스마스를 위한 거룩한 사역(눅 2:17-20)’ 등과 1884년 12월 설교한 ‘위대한 탄생과 우리의 성숙(갈 4:3-6)’까지 설교문 10편 전문이 공개되고 있다. 앞서 발간사에서는 스펔전 메시지의 특징을 ‘감각적 호소로 규정하면서 분석해 주고 있다.

이대웅 기자

##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편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책 발간을 통해 이러한 정신과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역과 해제를 함께한 이치만 교수(장신대)는 “가장 힘든 작업이 손으로 쓴 글씨들을 활자화하는 것이었다”며 “글자 자체가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편지가 오래돼 훼손되거나 글자가 휘발된 경우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희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도 박사, 오른쪽은 이치만 교수.

이 목사는 “손 목사님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남긴 글들만 갖고도 한국교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교회에 좋은 순교자이자 신앙인 선배가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로, 총 10권 내외를 출간할 예정인데 한국교회에

들이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이 교수는 “친필 유고들을 더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담아낼 계획”이라며 “2010년 1차 조사 때만 해도 옥중서신이 93편이었는데 이번에 73편밖에 남지 않을 정

→ 영락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기록이 있었는데, 제목이 ‘순교의 각오로 삼시다’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순교당하신 게 아니라, 이미 평생을 순교의 정신으로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손 목사가 옥중에서 쓴 한시.

분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遠離本家入獄中) /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夜深獄

深滿愁深) /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이나(夜深獄深人愁深) /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與主同居恒喜滿) / 옥중 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獄苦四年和多日) /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與主同樂如一日) /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過去四年安保主) /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未來確信亦然主)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복음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방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를 열어주소서

251면 / 10,000원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한글인터넷주소 : 쿨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l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강길 6 • T. : 747-1004(내)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외),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할인 할리슈팅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매하여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픏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기념 세일

-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치아미백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 원현대 칼슨 HYUNDAI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Over 1,000 youth and college students attended this year's Higher Calling Conference at the Town & Country Resort in San Diego.



This year, about 640 youths from local churches attended the conference.

## Korea Campus Crusade's 'Higher Calling Conference' Challenges Youth and College Students to 'Go Beyond'

BY RACHAEL LEE

Over a thousand youth and college students gathered in San Diego from Monday to Thursday for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s annual missions conference, called 'Higher Calling Conference.'

KCCC has hosted an annual winter conference since 1996, and this year, the conference was centered on the theme, 'Go Beyond.' Organizers said in a press conference that they hoped to explore various ways God goes beyond expectations in his power and love toward his people, and to challenge the attendees to dream and take actions beyond their comfort zones in respons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onference has seen progressively

more involvement from local churches in attending and leading the conference. KCCC opened up its once-exclusive winter conference -- which was then called 'Vision Conference' -- in 2009, and rebranded it to 'Higher Calling Conference' since. A consistent number of some 600 to 700 youths from local churches have been attending since then as well, according to Dong Whan Kim, national director of KCCC. This year also, while the conference saw a drop in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about 640 youths have registered and attended, he said.

"We believed it had potential to be a blessing to so many more people," Kim explained. "The conference doesn't exist just for KCCC, but for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We're hoping

that it could continue to serve to be a good influence and blessing to local churches to encourage their young people to be mission-minded."

One development that occurred in this year's conference is that most youth attendees were placed in small groups with leaders from their own churches. Up until this year, youths were placed randomly into hotel rooms -- which became the attendees' small groups throughout the conference -- along with other attendees regardless of church or college campus.

"Youth pastors do like the conference because students enjoy it and grow from it, and because the conference offers a lot of resources like big-name speakers, big praise teams and performances, that smaller churches can't afford on

their own," said Jacob Cho, college pastor at New Life Vision Church in Los Angeles. Cho has been serving as one of the leaders for the youth track of Higher Calling Conference since 2013.

"But they did tell me that one downside to the conference was that there was a lack of church time because the students would spend a majority of their time with their small groups," he continued. "Then after the conference, the whole experience kind of felt more like an individual one rather than a shared experience as a church."

Asking churches to bring their own staff and to lead their own youth in small groups allows for the church to have more time together and grow together as a body, Cho said. He added that it also serves as a way for church

leaders to make the content of plenary sessions more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for the younger attendees.

This year, two lead pastors of lo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ere also featured among the main plenary session speakers: Mike Erre of EvFree Fullerton, and Harold Kim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Higher Calling has generally been known to invite nationally known speakers or leaders of major organizations, such as Eugene Cho of Quest Church (who also spoke this year) and Francis Chan.

Harold Kim said he welcomed the invitation to be involved this year because "there are better things that can be done when many people, churches, ministries, come together."

## Online Petition Calls for Canadian Gov't Action on Behalf of Hyeon Soo Lim

BY RACHAEL LEE

An online petition demanding the release of Korean Canadian pastor Hyeon Soo Lim from imprisonment in North Korea was started on December 16, and as of 5:20 PM (PST) on December 23, the petition has over 51,300 signatures.

Lim, who was first arrested and detained in February during one of his regular trips to North Korea,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during a 90-minute trial on December 16. He was found guilty of attempting to subver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im had traveled to North Korea over 100 times since the late 1990s, according to sources close to him, on humanitarian trips involving work in an orphanage, noodle factory, and nursing home, among others.

"His trips were not political in nature," the petition states. "The Canadian government needs to take strong, affirmative action NOW. If there is political will, Rev. Lim can be rescued. Please help us bring him home!"

"This is a chance for Canada to

stand by its promise of protecting its citizens," wrote Emma Lim, a signatory from New Haven, CT. "Prime Minister Trudeau needs to act now and show the world that we've moved past the Harper era of neglecting our citizens in unlawful detention. Canada is better than this."

Lisa Pak, spokesperson for Rev. Lim's family and church (Light Presbyterian Church), said that though Lim's sentence is a harsh one, his supporters are hopeful that it would give more room for "diplomatic talks for his release [to] move forward rather than just stay in limbo."

"We're still asking people not to give up," Pak told CNN. "We're asking people to keep praying and we're asking the government not to give up."

Two Canadian diplomatic officials were able to meet Lim with a translator to confirm his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which was found to be stable, according to Light Presbyterian Church's leaders who reported the information at a prayer meeting held at the church earlier this week.



Parents choose toy gifts for their children at the Salvation Army's Christmas service that took place on Monday.

## Salvation Army L.A. Gives Gifts to Neighbors in Surrounding Community

BY JUNHYEONG KIM

The Salvation Army Korean congregation in Los Angeles has once again set out to give Christmas gifts to its neighbors in the community.

The church hosted a Christmas service and meal on Monday, during which toys and groceries were also given to the families who attended.

Last year, some 120 families and 400 individuals attended the

event, but this year, some 400 families and 1,200 people were registered. In one year, the event grew three times in scale.

The church confirmed with those who were registered whether their financial status is considered to be low-income, and then officially invited them to the ev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event began at 10 AM on a Monday, 600 people quickly filled up the church sanctuary. After the worship service together, various gifts were

given, and the participants spent time together over lunch.

Meanwhile, the Salvation Army is also collecting donations through its distinct red Christmas kettles in the Los Angeles communit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at many are facing, it's been difficult gathering donations this year," said Ju Chul Lee, who leads the Salvation Army congregation. "But there are those who are undergoing even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than us."

## Korean and Hmong Worship Together to Celebrate Christmas

BY JUNHYEONG KIM

Hmong children from Fresno came to Los Angeles on Sunday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with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at Hope Presbyterian Church's Sunday service.

Most of the service was carried out in English, with the exception of a special performance by the Hmong children, who sang 'Arirang,' and 'Until Jesus Returns' in Korean. The church congregation show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performance with a loud applause. The Hmong children also performed a traditional Hmong dance.

The Hmong are a people group that have lived in mountainous regions along the borders of China, Vietnam, Laos, and Thailand for at least 2,000 years.

Many of the Hmong people fought with the U.S.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but when the U.S. evacuated its soldiers, the Hmong people were persecuted in their homeland and many fled to the U.S. Some 260,000 Hmong people currently live in the U.S., and among those, 60,000 live in Fresno.

Many of the Hmong are known to follow its traditional shaman religion, and als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U.S. For many years, four Korean churches -- LA Sarang Community Church, LA Onnuri Church, Hope Presbyterian Church, and San Jose New Vision Church -- have been participating in rotations once per week to visit the Hmong people in Fresno and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From those visits, relationships among the Hmong community

and Korean American churches were developed, and 30 Hmong children traveled down to Los Angeles to worship with the Korean congregation on Sunday.

After the service, the Hmong children also stayed for three nights at the homes of many of the Korean Christian families in the Los Angeles region.

"These four Korean churches have been coming together to serve the Hmong people once per week," shared Kisup Kim, the senior pastor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Every time we visit, we meet about 50 to 80 Hmong children, and 30 of them were able to come visit us this time in Los Angeles," Kim added. "It's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n families to share the gospel to these children through their lives."



Hmong children from Fresno visited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Los Angeles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 길 순례체험 ★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로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

### [이스라엘]

-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여야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 [신들의 여행 ZEUS]

하나투어가 선사하는 아프리카 여행

# 두바이(2박) + 아프리카 7개국 16일

겨울 시즌(12월~4월) 동물들의 이동을 보실수 있는 곳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뿐입니다

★ 하나투어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킬리만자로 트래킹 포함 입니다.★  
세련된 호텔과 다양한 특색은 기본! 생생한 사파리 체험까지 내생애 특별한 여행을 선사해줄 아프리카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 \$10,500

성수기 및 연휴에는 항공요금이 인상으로 인해 상 품가변동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LA 출발 기준)

- \* BIG 5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관광
- \* 아루샤-세렝게티 구간 경비행기 탑승 포함.
- \* 잘보고 !!!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 대자연이 숨쉬는 미지의 대륙에서 동물의 왕국 여행
- \* 잘먹고 !!! 지역별 현지 특식 포함 (아마초마, 선셋크루즈, 랍스터, 보마식 등등)
- \* 잘 자고 !!! 전일정 4성급, 5성급 위주의 현직 최고 호텔과 롯지 숙박.
- \* 전일정 사파리 전문 한국어 하나투어 인솔자 동행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제 여행 갈때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 212.706.9177
- 라스베가스 사무소 :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렌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이상 Pre Pay 가능)